

日本語についての自信

ユン ヒョンジュ

(韓国カトリック大学校言語文化学部日語・日本文化専攻2年)

10月20日日本の信州大学の学生たちが韓国に来ました。私たちはその日のためにずっと前からたくさんの準備をしてきました。初めは日本人と1週間一緒に生活するので期待感でいっぱいでしたが、だんだん交流が近づくにつれて私は心配になってきました。日本人と日本語で上手に話ができるだろうか…。こんな心配で私はずっとため息ばかりでした。

しかし、私のこのような心を知っているかのように、信州大学の学生たちは私たちのためにゆっくり話をしてくれたりやさしい言葉を使ってくれるなどたくさんの配慮をしてくれました。そして、このような日本の学生たちの配慮で、私は日本語に少しずつ自信を持てるようになりました。日本人と話をしていると、もっと一生懸命勉強して日本人とたくさん話をしよう…と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たくさんの行事がありましたが、私はホームステイが一番記憶に残っています。ホームステイは日本人とたくさん話をしながら、本当に親しくなれたいい機会でした。ソウルのあちこちを歩きまわりながら、韓国の文化や韓国の人たちの生活の姿も紹介しました。

ところで私はびっくり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私のパートナーは私の家族に韓国語であいさつをするために、韓国に来て以来ずっと韓国語を勉強していたと言うことです。あまり上手には話せませんでした、本当にとっても感動しました。

1週間の生活を通じて、私は‘百聞は一見に如かず’という言葉を深く感じました。一緒に生活しながら、日本人の相手を配慮する心から日本人の生活様式などを学びました。

私に日本語についての自信をもたせてくれた日本の信州大学の先生方と学生の皆さんに心から感謝します。次にまた会うときは、必ず上手な日本語を話せるようになって皆さんをびっくりさせたいです。がんばります。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

윤 현주

(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전공)

10 월 20 일 일본 신슈대학의 학생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들은 그 날을 위해 훨씬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과 일주일간 함께 생활한다는 것에 기대감으로 가득 했지만, 점점 교류가 가까워짐에 따라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본인과 일어로 잘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걱정으로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신슈대학의 학생들은 우리들을 위해 천천히 말해 주고 쉬운 말을 사용해 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학생들의 배려로 저는 일본어에 조금씩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인과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저는 홈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홈스테이는 일본인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친해지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울의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한국위 문화랑 한국 사람들의 생활모습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파트너는 저의 가족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기 위해, 한국에 온 이후 계속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지 잘 말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매우 감동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생활을 통해서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깊이 느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일본인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일본인의 생활양식 등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을 준 일본 신슈대학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는 꼭 능숙한 일본어를 구사하여 놀라게 해주고 싶습니다.